

동화 심사평*

박상률

· <예심> 박상률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5·18의 후유증은 계속 된다. 한 세대가 흘렸지만 역사의 상흔은 질기만 하다. 5·18이라는 주제를 너무 의식하면 형상화가 도식적이거나 상투적이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이에 비해 입담도 있고 매끄러운 작품은 주제가 잘 잡히지 않는 약점이 있다. 이제 5·18이라는 사건 자체의 기록보다는 그 일로 인해 굴절된 사람들의 삶이 동화에도 더 맞는 성싶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삶과 무관하게 살지 않는다. 어른들의 삶이 심난하면 아이들 삶도 고달프다. 5·18동화 역시 어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아이들 삶의 기록이다. 그런 점을 두루 살피며 작품을 읽었다.

<예선통과작>

수상한 삼대(三代)	바뀌는 달린다	할머니의 느티나무
까만콩	학교 가는 길	

· <본심> 박상률

5·18이 있는 지 30년이 지났다. 이른바 한 세대가 지난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상흔은 여전히 짙다. 5·18이라는 주제를 너무 의식하면 형상화가 도식적이거나 상투적이어서 뻔하고 뻔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이에 비해 입담 좋고 매끄러운 작품들은 주제가 흐릿하였다. 5·18이라는 사건 자체의 기록보다는 그 날 이후 굴절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동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들의 삶과 동떨어져 아무 관련 없이 살게 되지 않는다. 어른들의 삶에 생채기가 나면 아이들의 삶 역시 같이 아픈 것이다. 이번 응모작들 대다수가 어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아이들 삶의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작품이 문학적으로 더 잘 형상화되었는

지를 살폈다. 동화 역시 문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눈여겨 본 작품은 <학교 가는 길>과 <까만콩>이었다. <학교 가는 길>은 5·18 때 머리를 다쳐 국민학교를 못 다니고 나중에 특수학교를 다니게 된 외삼촌 이야기이다. 주제는 뚜렷한데 사건 해결방식이 흥미를 덜 끌었다. 이에 비해 <까만콩>은 외삼촌 입을 통해, 이모라고 부르는 이가 사실은 엄마라는, 어찌 보면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역사의 아픔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등 형상화가 더 잘 이루어졌다.

<선정작> 까만콩 / 이민 작